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혼탁과 온갖 술수가 난장을 펼치던 시대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한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묶은 책은 이제 귀한 고전이 되었으니 세상의 아들들에 남긴 편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로마의 유명한 인문학자, 정치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마르쿠스 키케로(기원전 106-43년)이다. 당시 정치가로서의 키케로의 삶은 비방과 굴욕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 키케로는 정치가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중대함을 반복하며 강조한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선이며, 도리이자,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편지가 의무와 책임이 모든 권리의 토대와 전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쓴 '의무론'이다.

키케로는 정치가와 철학자로서의 실천적 윤리를 빼곡하게 썼다. "내가 모든 점에서 나를 능가해주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 일에 의무를 다하라는 마음일 것이다.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선한 삶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한다. "불의

선(善)의 의무를 가르치는 어느 아버지의 편지

를 저지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폭력과 기만이다. 기만은 여우의 교활함처럼 보이고, 폭력은 사자의 사나움처럼 보인다. 폭력과 기만은 인간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지만, 기만이 더 큰 혐오를 받아 마땅하다. 남을 가장 많이 기만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선인이라도 되는 양 위장하는 자들의 불의가 가장 위험하다." 누구나 마땅히 폭력성은 물론이고 특히 여우 같은 교활함을 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의와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우리는 용감하고 고매한 자,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털끝만큼이라도 남을 기만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어떤 형태의 불의든 거부하는 것이 선을 위한 의무라는 의미다.

선의 실행을 의무로 보는 키케로에 따르면 선은 네 가지의 기본 덕목인 지(知), 의(義), 용(勇), 인(忍)을 전제로 한다. 선함을 아는 힘이 지혜에서 온다고 보는 대목이 특별하다. 사실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교활과 꼼수와 불의가 얼마나 쉽게 활개를 치는가. 그래서 더욱 키케로의 '의무론'은 인문 정신의 표상이자 시대의 도덕 교과서 같은 것이었다. 의무론의 핵심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무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에 있다. 그는 선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옳을 수 없고 유익한 것도 아니어서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함은 옳음을 뜻하며, 이를 지키는 의무 이행 없는 권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유익하게 보

인다고 해도 선하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일이다. 키케로는 다시 근본적 물음을 한다. "선한 사람이라는 칭호와 명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만큼 이롭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폭력성과 교활함이 선한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각자의 욕망에 취해서 의무는커녕 권리의 과용과 기만의 술수만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키케로는 선을 의무로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한다. '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개별적 욕망을 이성으로 복종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때 의무 이행의 선한 동기가 가장 중요하며, 동기가 선해져 전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익하지는 않지만, 선할 수 있다'거나 '선하지 않아도 유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선을 위한 의무의 이행은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상관없이 모두의 의무이자 윤리적 삶의 법칙이다.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가타부타할 것도, 이런저런 조건도 없이 그냥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이다. 이 명령은 어떠한 조건이나 결과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절대적 의무이다. 정언명령은 위치의 고하와 위치에 따른 권리를 넘어서,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를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들의 교활함이 저절수룩, 선의 의무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할 정언명령의 의무이다.

수필의 향기

그녀, 세이렌



김향남  
수필가

시작하고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된 오디세우스는 잠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그날수목 뱀줄은 더욱 조여들었다. 이를 악문 고투 끝에서 겨우 성공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달인이었는데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생명이 없는 목석들도 일어나 춤을 추었고, 아무리 난폭한 맹수라도 금세 얌전해지곤 하였다. 왕이 되기 위해 황금 양털을 구하러 떠난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도 항해 중에 세이렌을 만났다. 그러나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로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

수많은 선원의 목숨을 앗아간 세이렌이 사라지게 된 데는 이처럼 두 영웅의 지략과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 유혹에 실패한 그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거나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바위로 변했다. 누구든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원칙인 까닭이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영영 사라지고 없을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점령한 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때보다 더 집요하게,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도록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서, 푸른 바다 흰 돛처럼, 마치 지친 영혼들을 위로라도 해주듯이...

우리는 여행 중이었다. 방콕 시내 한복판 짜오프랴야 강변, '아이콘시암'이라는 화려한 건축물이 있었다. 소위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고가의 제품에서부터 길거리 야시장의 물건들까지 두루 갖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었다. 특히 지하 1층은 재래시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굳이 멀리 떨어진 야시장까지 갈 필요를 없게 했다.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한껏 시장 기분을 느껴버린 우리는, 다음 여정인 재래시장 구경을 생략하기로 했다. 여행의 재미는 누가 뭐래도 쇼핑을 빼놓을 수 없거니와 거대 자본의 탐욕은 진작에 그마저도 간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실컷 눈요기나 하리라는 다짐은 온데간데없이 꾸역꾸역 쓸어 담은 물건들이 양손에 즐랑 즐랑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기 전부터 미리 계획해둔 것이 있었는데, 맛, 바로 그거였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방콕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번 여행을 총괄한 큰애가 그건 꼭 해야 한다고 사전에 일러둔 바였다. 물론 당연히 환영했다.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조망하는 맛이 좋겠는가 말이다. 세이렌을 앞세운 스타벅스의 전략이 더욱 돋보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홀린 듯이 걸음을 옮겼다.

넓고 큰 매장 둥근 기둥 위에서 세이렌, 그녀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고향 사람이라도 만난 듯 왈칵 반가움이 앞섰다. 그녀는 왕관을 쓰고 물결처럼 긴 머리카락을 드리우고 입가에는 얇은 미소를 띠었다. 폴빛처럼 청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여쁜 얼굴이었다.

우리는 제각기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짜오프랴야 강을 바라보았다. 세이렌은 어느새 우리의 입맛까지도 훔쳐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는 않는 듯했다. 강에는 배들이 떠가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기고

달빛철도에 저는 기대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

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2006년부터 추진된 세 차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이후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0.483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수차례의 도전 끝에 국토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포기하지 않은 배경에는 달빛철도는 단순히 영호남을 연결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철도사적이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은 경부축을 필두로 남북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서축보다는 수도권과 연계돼 수요가 많고 가시적 경제성이 크게 나타나는 남북축을 중시한 기존 정책 때문이다. 동서축의 교통 인프라 부족은 결국 동서간 통행을 제한했고, 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달빛철도는 철도 140년사에 있어서 비수도권 도시들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간선철도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달빛철도 건설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가 '정치경제론'에서 밝혔던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른바 세이의 법칙(Say's Law)

적용이 가능한 대표 시설이다. 2015년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역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 했으나, 현재 이용객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이제는 늘어나는 이용객들을 감당할 수 없어 2배 규모로 송정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신산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공항, 철도 등 고속교통 인프라는 필수다. 일본 나가노시와 가나자와시를 동서축으로 잇는 호쿠리쿠신칸센이 2015년 개통되면서 지역발전은 크게 견인했다는 소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달빛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돼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신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내륙을 대표하는 2개의 거점도시이지만 현재 인구감소 발생, 지역경제 성장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녔다. 사회·경제적 유사성은 협력의 필요성을,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차별성은 양 지역이 손을 맞잡을 때 보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광주와 대구는 이번 내륙철도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 확신한다. 달빛철도가 개통된 2030년에는 광주 시민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 서울이 아닌 대구를 방문하고, 대구 시민은 호남지역의 음식을 맛보거나 현재 조성중인 복합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방문하게 되는 행복 한 상상을 해본다.

社說

의대 증원, 전남권 국립의대 추진 동력 확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 사재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에 정신 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요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4대 정책은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인데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다.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2000여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장학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 대신 계약을 통해 지역 의무 근무를 규정할 것만이 다를 뿐이다. 때마침 여당인 국민의힘도 어제 4·10 총선 5호 공약으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5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장한후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다행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규모가 없는 전남은 30년 숙원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추진 동력과 명분을 마련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위한 정치용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 방법은 좌우로 편하지 않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를 신설한다면 없는 곳에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고 지역 여론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전남권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부작용 최소화해야

최근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한 교육부가 대학의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이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생 입장에서선 전공 선택권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고, 대학은 시대나 기술 변화에 맞게 공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대학이 지금까지 겪었던 전공과 학과의 벽이 무어있어서는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학생 실패 현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인문사회·기초

과학 전공에 학생이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국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등이 기초학문 붕괴를 우려하며 중단을 요구한 이유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여의치 못한 대학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특히 무전공 선발이 글로벌 대학 선진화도 무관치 않은 사항이라 도입 시기, 선발 규모, 학과 간 유·불리 등을 검토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사실, 무전공 선발 확대는 예전에도 추진된 정책이다. 학과 단위 대신 '학과'나 '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한 적이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자유전공학부'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모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이번 방침이 당장 내년에 입시를 치를 수험생의 입시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진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papyrus)라는 종이에 기록을 남겼다. 영어 페이퍼(paper)의 어원이기도 한 파피루스는 종이에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던 재료를 일컫는다. 현재 발굴되는 파피루스에는 주문이나 부적 외에도 회계, 설계 등과 같은 다양한 기록이 담겨 있다. 흥미로운 글씨들도 있는데, 예컨대 '요즘 젊은 것들이 바투이 없다'와 같은 이색적인 내용이 한 예다.

동서고금을 떠나 세대 갈등은 늘 존재했다. 사전적 의미의 세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1945), 베이비붐 세대(1946-1964), X세대(1965-1979), 밀레니얼 세대(1980-1994), Z세대(1995-2012), 알파 세대(2013-2029)가 그것이다.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술로, 이는 생활·사고·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도구를 발명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과학 또는 지식'이 모두 기술이다. 사회 발전과 맞물려 긍정적 자기관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확산, 수명 증가로 나타

난 슬로라이프(느려진 인생주기) 양상은 세대 차이를 심화시켰다. 얼마 전 이준석 개혁

람들을 일컫는다. 한편으로 부모 시대와 자녀 시대가 차이를 지나는 대략 30년의 기간을 한 세대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대라는 말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용어가 '세대 차이'일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령대에 따라 특정 세대에 속한다. 샌디에이고주립대 심리학과 진 트랜지 교수는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동 시대를 사는 각각의 세대를 분석한다. 모두 여섯 세대로 나뉘는데 사일런트 세대(1925-

신당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실 무임승차 패자'를 주장했다. 입장이 갈리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의도는 무엇일까. 복지비용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내세운 '세대포우론'이라는 갈라치기를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인은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포용, 세대 화합을 견인해야 미래가 있다. /박성천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국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